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우리의 잘못과 하나님의 자비(루카 6,27-38 (다))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OC기독교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OC)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14일(일) 오후 미러클포인트교회(담임목사 박재만, 1540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에서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행사에서 직전회장 심상은 목사(갈보리산교회 담임)가 이임하고, 신임회장으로 박재만 목사(미러클포인트교회 담임)가 취임했다.

박재만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 힘들어하는 교회를 손잡아 끌어 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일 것"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면 감당할만한 것을 준 것이고, 이 마음으로 감사하게 사역할 것이다. 성령님의 도움에 힘입어 240여 교회를 세우는데 앞으로 나갈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심상은 목사는 이날 '창의적 리더가 되라'(민수기 13:30-33)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창의적 리더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행하는 사람이다. 이 시대 모두가 자기들의 말이 옳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볼려고 외치는 창의적 리더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면서 "신임회장 등 모든 임원진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계를 이끌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장애인장학복지기금 전달 미주밀알선교단

미주밀알선교단이 주관하는 '2024년도 밀알 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1월 15일(월) 감사한인교회(담임목사 구봉주, 69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미주밀알선교단은 미주장애인장학생 9명 등 총 105명에게 136,200달러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2001년부터 지급된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은 지금까지 총 3,012,400달러에 이른다. 이번 장학금은 작년 9월 29일-10월 1일에 열렸던 '2023 밀알의밤'을 통해 모금했다.

우리는 잘못된 후, 고백의 성사를 보고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신앙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죄에 떨어질 때마다 몇 번이고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몇 번이고 반복될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남을 용서할 때 같은 잘못에 있어 두세 번은 용서하지만 그 이상은 용서해 주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의 거듭 범하는 죄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실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좁은 자기 마음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떠한 모욕과 모독을 준 죄인이라도 한없는 자비로 그들의 회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통회의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죄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잊으시고 반겨 안아 주십니다. 언젠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가까운 자들을 용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관대한 태도를 이상히 생각하여 "주님 저는 몇 번이나 제 형제가 제게 잘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시오(마태 18,22)"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하나 하나의 피조물 위에 풍부하게 흐르고 있고, 그 마음의 부르짖음은 예언자의 입을 빌어 '여인이 자기 아기를 잃고 자기 뱃속에서 난 아들을 가엾게 아니 볼 수 있겠느냐. 그 여인들이 잇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민수 39, 15)' 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절대적이며 무조건인 것으로, 어떠한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도 분노와 증오를 품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위에 베푸시는 자비도 한층 더 풍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애정의 최고의 표현을 십자가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따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을 건 애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탕자의 비유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지상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탕자인 작은아들은 단조로운 집안살림에 지쳐서 잔소리를 퍼붓고 자기 책임을 회피했으며, 형을 시기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 집을 등지고 멀리 떠나 가버렸습니다. 고향과 집을 등진 그는 이따금 그는 자기 집을 등지고 멀리 떠나 가 버렸습니다. 고향과 집을 등진 그는 이따금 남이 집 대문을 두드리고 동

냥을 청하거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금전과 건강을 낭비했던 것입니다. 얼마 안되어 돈이 떨어지고 자기 주위에 있던 여자들도 사라지고 음악도 끝났습니다.

어느 고요하고 추운 밤, 마지막 희미한 희망의 빛이 그의 머리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즉, 속을 태우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고향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귀는 큰아들의 시기와 분노로 인하여 난관에 부딪혔으나, 아버지의 자비심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화해의 성사 곧 고백의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프고 지친 인간의 마음은 이해와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자비와 용서의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죄인인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계중 신부-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